

대구·경북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김 경 남*

I. 머리말

II. 한반도내 학생 근로동원 배경과 동원체제 구축

1. 중일전쟁기 대구·경북 ‘학도근로보국대’ 동원체제
2. 태평양전쟁기 ‘학교총력대’ 와 강제 동원의 전면화

III. 학생의 군사적 동원 실태와 국제법적 불법성

1. 대구 군사 도로·군 노무 수요와 학생 동원
2. 군수 물자 조달기업 동원
3. 대구국제비행장 도로와 확대 공사 동원
4.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내 병참기지의 역할이 후방병참기지로 변화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대구 군사 기지의 노무 수요 발생에 따른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학생 강제 동원 행위는 1932년 시행된 국제노동기구

* 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knkim@knu.ac.kr

(ILO)의 규정, 즉 학생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생 강제 동원은 국가총동원법과 조선교육령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실시하였으며, 1938년 이후 노무동원 일수를 점차 늘려 1944년 4월 1일부터는 수업을 전면 근로 동원으로 대체하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학생들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근로동원기구 하에서 학생근로보국대와 학교총력대로 편성되어 육군보병제80연대의 지휘를 받았고, 1943년부터는 경북24부대 대구사관구의 휘하에서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은 주로 군사 도로와 군수 기업, 항공 부대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 격납고 설치, 방공호 굴 파기, 수류탄 만들기 등에 투입되었으며, 학생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작업을 감내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반도내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의 외교 문제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보상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향후 학생 강제 동원에 대한 각 지역의 국제법적 위반 사례가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강제동원, 국제노동기구, 대구군사거점, 조선총독부, 육군성, 항공 부대

I. 머리말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간의 주요 현안으로서 그동안 일본지역 탄광이나 광산 등에 대한 강제동원 실태조사와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추진한 노동력 동원에 관한 실태와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종래 연구에서 한반도 내 강제 노무자 동원의 지배정책과 동원정책, 동원구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의 진척이 있었고,¹⁾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인천·경기, 전남·여수, 제주 등 지역별 사례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²⁾ 그 중 한 축을 담당했던 학생들의 집단 노동

- 1)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國學資料院, 1997; 박진홍, 『일제의 노동 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가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제24호, 首善史學會, 2005; 허수열, 「일제말 조선 내 노동력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5; 庵途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김운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한일민족문제연구』 14, 한일민족문제학회, 200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1,2』, 同위원회, 2013; 김경남, 「전시체제가 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35, 2018; 김광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한국과 일본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6, 2019.
- 2)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가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제24호, 首善史學會, 2005; 이병례,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 제주도 주민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7, 역사학연구소, 2007; 김진영, 「일제 말 강화군에 대한 인력동원의 실태와 추이(1938-45)」,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노영중, 「대전지역의 강제연행 현황」, 『대전문화』 14, 2008; 허수열,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운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서, 2008; 김민영,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전북지역의 사례」, 『한일민족문제연구』 1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9;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의 현황과 실태」, 『코리아연구』 3, 2012; 강필구, 「일제의 전시체제가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분석 -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3; 이수환·이광우, 「일제강점기 경북지역의 이주와 일상사:1939~1945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문혜지, 「일제말기 완도지역 노무동원 연구」,

력 동원에 관한 연구도 지역별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동원정책의 추진 배경과 그 전개과정의 특징에 대한 연구, 둘째, 각 지역별, 부문별로 강제 동원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 동원정책의 각종조치와 법령을 세밀히 밝히고, 학교 총력대 조직의 변화를 통해 노동력 동원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⁴⁾ 향후 지역별, 부문별 실태 연구는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학생동원에 대한 연구는 동원 종류별로 주요 학교를 사례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⁵⁾ 하지만, 일본의 전쟁 판도에 따라 달라진 군사 기구의 변동과 총동원체제 속에서 대구경북 학생동원이 가지는 의미와 동원 시스템의 군사적 성격과 실태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⁶⁾ 그러므로 학생 강제 노동력 동원의 실태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확대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대구·경북 지역의 군사 시설 및 군수기업 실태, 식량생산을 위한 동원 등 동원지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조직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14; 노영중, 「일제강점기 충남지역의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67, 2018.

- 3) 신주백,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역사교육』 제78집, 역사교육연구회, 2001; 강명숙, 「일제말기 학생 근로 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韓國教育史學』 제30권 제2호, 韓國教育史學會, 2008; 권영배, 「일제말 전시체제하 중등학교의 동원과 저항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40집, 역사교육학회, 2008; 정혜정,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韓國教育史學』 제30권 제2호, 2008;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 제12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 최규진, 「학교를 덮친 ‘전시체제」, 동원되는 학생」, 『(내일을 여는) 역사』 제50호, 선인, 2013;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근로 보국대와 국내노무동원 = 학생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95호, 2015. 이상의, 「전쟁과 학교-일제강점 말기의 학생동원과 학교교육」, 한국연구재단, 2015.
- 4) 전성현, 앞의 논문, 2015, 이 논문에서 학교대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당시 학교 총력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총력대로 표현하였다.
- 5) 권영배, 앞의 논문, 2008.
- 6) 정혜정, 「일제말기 경북지역 출신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저항」, 『한일민족문제연구』 2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3; 권영배, 앞의 논문, 2008; 강필구, 앞의 논문, 2014.

적으로 노동을 강제 당했으며, 학습권을 박탈당했다는 중층적인 억압구조에 있다. 당시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국제법 제7조에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157개국에서 비준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리부동하게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ILO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학도근로동원기구’를 만들어 대부분의 학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원하였다. 이 문제는 학령 아동에 대한 인권차원의 폭력문제이며, 향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이중적인 억압구조와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향후 강제동원 연구 분야에서 더욱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고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전쟁 경과에 따라 한반도 내 대구 경북의 전략적 군사 거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 지역 학생 동원의 군사적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정부도 비준한 1932년 시행된 ILO 규정에서 학생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강제 근로동원의 군사적 특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 피해사례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각 지역의 사례 연구 축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범주 속에 포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구·경북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용산, 광주 군사기지와 함께 남한지역에서 대표적인 군사적 거점이며, 학교도 초등에서 사범대학까지 66개(초등 53, 중등 10, 전문대 3개)로 학생 대량 동원 체제가 갖추어 있기 때문이다.⁷⁾ 본고에서는 당시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일부,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등 10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중등학교

7) 일제시기 당시 학교 명칭은 보통학교나 국민학교로 사용되었으나, 고유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 초등학교를 사용하였다.

는 대구고등보통학교(이하 대구고보, 현재 경북중고등학교의 전신), 계성 학교, 대륜고등학교, 대구상업학교(현재 상원고), 대구신명여학교, 경북고 등여학교를 사례로 한다. 전문학교는 대구사범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농업학교를 사례로 강제 동원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피해자 인명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연구방법은 일국사적 시각을 넘어 지역사적 차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제국정부는 법률과 칙령을 제정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식민지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구권 학생들을 근로동원한 학교를 조사하고 당직일지 등을 통해 동원과 활동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대구권역 학생들의 근로행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밝히고, ILO의 국제법을 검토하여 국제법적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주요한 자료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학교 관련 수집기록물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대구부가 학교에 시행한 공문서와 당직일지 등 당시의 실상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국립공문서관과 방위성 방위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 동원 관련 공문서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시행 공문서를 사용할 것이다. 그 외 당시 발간된 신문과 잡지 등을 활용한다.

연구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내 학생의 근로동원 배경과 동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전쟁 확대와 식민지 병참기지 건설, 제3차 조선교육령하 학도동원체제를 고찰한다. 둘째, 대구·경북지역 학생의 근로 동원의 불법성과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일제 군사시설과 ILO 국제기구의 학생 근로동원 제한 조항을 검토한다.

II. 한반도 내 학생 근로동원 배경과 동원체제 구축

1. 중일전쟁기 대구·경북 ‘학도근로보국대’의 결성과 활동

대구·경북의 학생들은 어떠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동원되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정부와 군부가 중국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한반도 내 군사적 거점과 공업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일전쟁을 위해 먼저, 한반도 북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1941년 미·영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자, 이제는 남태평양과 일본 본토를 사수하려는 목적 하에 한반도 남부 거점 지역을 개발하여 후방병참기지로 활용하려고 하였다.⁸⁾ 학생근로동원의 역할은 제3차조선교육령에서 보완적 역할을 했다면 제4차조선교육령 개정에서는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역할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면 대구·경북의 학도근로동원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1938년부터 1941년까지는 법령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은 ‘학도근로보국대’라는 형태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학교총력대’라는 조직으로 동원되었으며, 조선교육령을 통해 동원 일수도 점차 늘어나가는 수법을 활용하였다.

동원조직은 일왕(정식명칭은 天皇)을 최고 원수로, 일본 육해군성과 조선군,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학도동원기구가 조직되었으며, 상명하달식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지만, 학생 동원을 위해 조선교육령을 두 세 차례 개정하면서 근로 동원 기간을 늘어나가는 방식으로 근로 동원을 강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⁹⁾

8)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김경남, 『일제의 식민도시 건설과 자본가』, 선인, 2015 참조.

9) 학생 강제동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교육정책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부터 1933년 3월까지 제1차 식민지 교육의 토대를 세우는 시기이다. 제2차는 1922년 3월부터 1937년 3월까지 이른바 ‘문화통치’로의 전환 가운데 나온 방안이다.

총동원과 관련된 교육령은 1938년 3월 3일부터 실시된 제3차 교육령과 1943년 3월 8일부터 실시된 제4차 교육령이 해당된다. 교육령의 목적은 전시체제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양성하고, 군사 목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전쟁 말기 일본정부는 교육을 포기하였으므로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학생들은 학습권을 잃었으며, 일본내각과 총독부는 전시체제를 위하여 완전히 교육 현장을 학생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한편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령이 ILO의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자체가 강제 동원을 하였다는 증거이지만,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LO에서는 1932년부터 학생 근로 금지를 선언하였고, 일본을 포함하여 157개국이 비준하였다.¹⁰⁾ 하지만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30일 이내로 학생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교육’이라고 은폐하고 있다.¹¹⁾ 그리고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수업을 전폐함으로써, 학생근로금지 조항을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학생들은 언제부터 강제 동원되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만들어지기 직전 해 1937년 8월 24일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을 실시하면서부터였다.¹²⁾ 그리고 총동원법이 발효되기 한 달 전인 1938년 3월 3일 조선교육령에는 30일 이내로 학생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령에 학생을 강제동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는 점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1938년 4월 1일에는 법률 제55호 국가총동원법을

10)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 동원 금지법 제7조 제4항. 이 조항에는 학생은 물론 교사 등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강제 근로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

11) 『매일신보』, 1938.8.13.

12) 朝鮮總督府, 「國民精神總動員實施要綱」, 1937.8.24.

13) 內閣, 「第3次朝鮮教育令改正」, 1938.3.3.

발효하였고¹⁴⁾, 5월 3일에는 식민지 조선, 타이완(臺灣)·가라후토(樺太, 현재 사할린)에도 시행하게 된다.¹⁵⁾ 국가총동원법과 국민근로동원령은 내각총리가 총책임을 맡고 대동아성, 내무성, 문부성, 군수성, 후생성이 각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부구조의 체제하에서 일본본토와 식민지의 근로보국대 관련 구체적인 정책 시행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시행과 동시에 바로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동원 계획이 조선 각 지역 학교에 하달된다는 점이다. 6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 실시 요강이 정무총감 명으로 하달되었고, 7월 7일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학교에도 학도근로동원 본부가 만들어지고 청년들도 동원되었다.

이 총동원법과 3차교육령을 근거로 총독부는 ‘집단근로운동’이라는 것을 고안하였다. 학생 동원을 담당한 주무국은 학무국이다. 학무국은 이미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총동원법 시행 2달 후인 6월 11일 정무총감은 ‘학생생도의 근로 봉사 작업 실시에 관한 건’을 각 도지사와 직할 학교장에게 통첩하여 학생들을 집단 노동력에 동원하도록 하달하였다. 그 달 28일에는 각 도 학무과장 회의를 통해,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근로보국대로 동원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실시 계획과 지도 방법을 세워, ‘학도 근로보국대 실시 요강’을 발표하고, 여자 중등학교도 포함하여 한반도 내 전역에 실시하였다.¹⁶⁾

일본정부는 본토에 국민정신총동원본부를 만들고 각 식민지에 연맹을 만들었다. 한반도에는 조선연맹이 만들고, 전 조선의 행정구역과 일반단체, 학교를 기본단위로 하여 조직하였다. 총독부에서 각 도지사, 부윤, 군수, 직할 학교장으로 하달되는 구조로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일반인, 학생 할 것 없이 총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14) 內閣, 「國家總動員法を施行する件」, 1938.4.1.(法律 第55號).

15) 內閣, 「國家總動員法を朝鮮・臺灣・樺太に施行する件」, 1938.5.3. (勅令 第316號).

16) 허수열, 「일제말 조선 내 노동력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5, 328쪽.

조선연맹에서 학교 근로보국대가 만들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독부 내무부장이 7월 1일 각 부윤, 군수에게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을 하달하였다. 같은 달 7일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결정하였다. 이 날에 총동원법 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징용령이 칙령 제 451호로 발효되었다. 이때부터 학생들에 대한 동원은 더욱 빈번하고 더욱 집요한 형태로 이루어져, 각 지역에서는 학교근로보국대를 통한 이른바 ‘근로봉사운동’을 시작한다.¹⁷⁾ 대구의 경우에는, 7월 16일에 각 중등학교 근로보국대가 결성되었다. 학교에서는 하계 휴업일 등 휴가를 이용하는 외에도 수시로 작업을 시키고, 이때 출결석을 점검하고 근면·태만 등 성적까지 매겼다. 7월 21일부터는 정규교과목에 준하여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⁸⁾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일정 기간 단체생활을 하며 도로공사, 사방공사, 황무지개간, 매립공사, 수로공사, 그 외 공사에 동원되었다. 심지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8월 31일에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된다.

근로와 관련하여 가장 강제성을 띤 칙령은 1939년 7월 7일 국가총동원법 제4호에 입각한 「국민징용령을 정함이다」. 주무 기관은 내각 총리, 척무성, 후생성으로서, 이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시행령인 조선총독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검토해보니, 학생 강제동원의 시스템적 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¹⁹⁾ 특히 1939년 후반부터 토목건축 분야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점차 ‘무작위 노동력 동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였고, 근로보국대를 일반과 학생 근로동원으로 구성하여 노동력 공급 정책을 취하였다. 일반은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을 통해 노동력을 모집하였으며, 학생 동원은 학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도근로보국대’를 만드는

17) 「學生生徒の愛國勞動奉仕作業實施」, 『文教の朝鮮』 155호, 1938.7, 90~94쪽; 「學校勤勞報國際」, 『朝鮮』 제278호, 1938.7; 「學徒勤勞動員出動要領決る」, 『朝鮮』 제350호, 1944.

18) 허수열, 앞의 논문, 2005, 329쪽.

19) 이 문서는 주로 內閣總理 太政官 內閣關係, 第6類 公文類聚 第63編, 昭和14年 第80卷 軍事2 國家總動員에 편성되어 있다.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였다.

1940년 3월 5일 총동원법 제4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국민근로동원령이 칙령 제 94호로 발효되었다. 그해 12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서 ‘생산력확충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무동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41년에는 국민근로보국령을 제정하였고, 학교에는 학교총력대(學校總力隊)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보국대 활동을 강화하였다. 6월 정무총감은 ‘근로보국대 활동 강화요강’ 요령을 통첩하여, 근로보국대가 한층 강화된 형태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⁰⁾ 6월 27일에 근로보국대 활동의 향상화(恒常化)를 촉진함과 아울러 생산 확충을 위하여 ‘학생생도의 집단근로작업실시에 관한 건’이라는 학무국장의 통첩이 내려졌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미국과의 일대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식민지에서 강제 동원을 더욱 빈번하게 추진하고,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총독은 정무총감을 본부장으로 학도근로동원본부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지역에는 ‘학교총력대’를 만들고, 교장이 대장이 되어 교감, 교사를 대원으로 하고,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동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사들은 철저히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가 넘어가거나 폐교를 당하기도 하였다.²¹⁾

그러면 이러한 정책은 대구·경북 소재 학교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살펴보자. 1941년 6월 7일 총독은 ‘국민총력운동에 대한 관리의 술선수범에 대한 건’을 내무, 산업, 경찰부장, 부윤, 군수, 도사, 경찰서장, 공사립 중등학교장, 각 업무소장, 청 내 각 과장에게 하달하였다.²²⁾ 8월 11일에는 국민총력 대구부 연맹이사장이 전시국민생활강조 실천사항을

20) 전성현, 「전시체제기 학교 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조선총독부의 학생동원정책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제61호, 2015.

21) 전국적으로 종교 계통의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며, 대구에서는 대륜고가 서병조에게 넘어가고 계성학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朝鮮總督府, 「國民總力運動に対する管理の率先垂範に関する件」, 1941.6.7.

경찰서, 상공회의소, 국민학교와 중등학교에 전달하였다.

또한 일주일 뒤 18일에 총독부는 전시국민생활체제 확립에 관한 건을 내무부장, 부윤, 군수, 도사, 각 공사립 중등학교장에게 배포하였다. 총독부는 이러한 공문서 배포에 머물지 않고, 경상북도에 하달하여 대구의 각급 학교에 ‘학교총력대’를 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내무부장 명의로 대구의학전문학교장, 대구사범학교장, 부내 각 공사립 중등학교장에게 전달되었다.²³⁾ 또한 10월 20일 대구부연맹 이사장이 각 정동 각종 연맹 이사장에게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 내용을 하달하였다.²⁴⁾ 이러한 지시에 따라 대구 소재 전문학교 3개, 중등학교 15개에서는 학교총력대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학교총력대는 전쟁 말기가 되면서 더욱 학생들에게 근로 동원을 강제하게 된다.

그러면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경상북도 학도동원본부에서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 동원을 추진하였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총리대신이 하달한 공문서를 받은 수신기관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경상북도 내무국, 산업국, 경찰부장, 부윤, 군수, 도사(島司), 경찰서장, 전문중등학교장, 금융조합, 이사, 업무소장, 도립의원장, 대구신사공사, 관방주사, 각 과장이다.²⁵⁾

당시 계성학교에 온 공문서를 통해 강제 동원과 관련한 상부로부터의 지시와 지배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먼저,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진 지고 시행되기 이전에 국민정신총동원령을 통해 이미 식민지 조선에서는 군사후원연맹이 있었고, 대구부윤, 경상북도, 각 정 조합 총대로 이어지는 상명하달식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먼저, 계성학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에게 보낸 공문서는 1938년 2월 17일부터 대구부 군사후원연맹회장으로부터 온 공문이다. 이 공문은 계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장, 초등학교장, 각 정 조합 총대에게 애국헌금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독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⁶⁾

23) 慶尙北道, 「學校總力隊結成式に關する件」, 1941.10.18, 1941.10.18. 실수학교는 제외.

24) 大邱府連盟理事長, 「國民皆勞運動實施に關する件」, 1941.10.20.

25) 「總理大臣告諭及訓令發布に關する件」, 1938.2.19.

그 다음은 2월 22일 대구부윤은 국민정신총동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문을 하달하고 있으며,²⁷⁾ 그날 군사후원연맹회장은 각 학교에 00부대 전적 전람회 개최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⁸⁾ 이어서 2월 25일 경상북도 군사후원연맹에서도 전적 전람회 관람 요청을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구공립고등학교가 당번학교로 되어 있어, 군사후원연맹에서는 당번학교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명하달식 구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계성학교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4월 18일에 국민정신 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하는 것을 알렸고 5월 30일, 국민정신 총동원에 관한 강연회 개최에 대하여 학교에 알리고 있다.²⁹⁾ 학교에는 학교총력대를 만들고, 학교장을 총력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교감, 교사가 지도반이며 학생에는 반을 두어 반장 이하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에 배치되어 있는 육군보병80연대는 대구 경북의 학생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으며, 근로 동원 때에도 배치되어 감독하였다.

요컨대, 총독부는 학도동원본부 기구를 만들었으며, 학교까지 알려질 수 있도록 대구부윤과 경상북도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동원을 지시하였다. 또한 학교총력대를 활용하여 학교장이 대장이며, 교감, 교사, 학생반 반장과 부반장이 학생을 지시 감독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육군보병80연대는 학생 군사훈련과 통솔을 맡았다.

2. 태평양전쟁기 ‘학교총력대’ 동원

1) 제4차 조선교육령개정 하 학생 강제동원의 전면화

진주만 공습 이후 미영 연합군이 참전하기 직전인 1941년, 일본정부

26) 大邱府軍事後援連盟會長, 「愛國獻金取扱に関する件」, 1938.2.17. 이하 대구부와 대구부군사후원연맹회 관련 문서는 계성학교 수신문서이다.

27) 大邱府, 「國民精神總動員第2回強調週間実施の件」, 1938.02.22.

28) 大邱府軍事後援連盟會長, 「〇〇部隊戰績展覽會開催の件」, 1938.02.22.

29) 大邱府, 「國民精神總動員に関する講演会の開催に関する件」, 1938.05.30.

는 식민지에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공포하고 더욱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³⁰⁾ 근로보국대는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면 단위에서, 총동원 기구의 후원 하에 애국반 단위로, 직장·사회단체·청년단체 중심으로 전국 각처에서 강력히 추진시켜 나갔던 것이다.³¹⁾

수업연한과 학생 상시 근로 동원의 획기적 전환의 포인트는 1943년 3월 8일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이다. 그 목표의 핵심은 학교를 군대의 보조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전체주의적·군사주의적·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제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교육은 즉 근로봉사’라는 말을 하면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식량증산과 무기생산, 도로공사 등 노무자들처럼 일군으로 내몰았다.

제4차교육령 학제는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60일까지 근로 일수를 늘리고, 심지어 중등학교 이상 각 학교의 수업연한을 각 1년 씩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³²⁾ 3월 22일에는 ‘학도전시식량증산출동요항’을 시작했고, 이른바 산업적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군수산업과 식량 증산에 학생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조선총독부는 신학기부터 식량증산을 위한 학생들의 노동력동원을 계획했다.³³⁾ 이 교육령에 따라 학생 동원을 임시적인 이른바 ‘근로봉사’에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동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것은 7월부터 실시된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에 따라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1943년 10월부터 ‘근로가 곧 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책’에 의해 학생을 국방 제1진에 나서도록 강요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생근로동원도 1941년 6월의 ‘근로보국대활동강화요강’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학도지원병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였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징병검사를

30) 강정숙 외, 앞의 논문, 1997; 김윤미, 앞의 논문, 2008.

31) 허수열, 앞의 논문, 2005.

3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5.

33) 『매일신보』1943.3.27, 「內鮮一體本義顯揚과 産業的教育에 重點, 朝鮮中等校規程改正의 骨子, 本多學務課長談」.

실시하여 학도병을 선발하였다. 이듬해인 1944년 1월 20일부터 학도지원병이 입영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군인·군속으로서, 군사기지로 배치되어 군대의 이전 등으로 인한 숙소 건설, 도로 개선, 비행장도로 확대 등에 활용되었다.

이처럼 1943년 이후 근로동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강제화되었고, 학생들에게도 더욱 근로 시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내각은 제 4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60일 이내까지 강제할 수 있었으며, 1944년 1월부터는 10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의 1월부터 근로동원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2월에는 ‘전문학교·중등학교의 전환정비요강’이 시달되었다. 3월 15일에 학무국장이 ‘학도동원비상조치에 따른 중등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조치요강’에 기초해 중학생 이상 학생을 1년 간 계속 동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정지되었다.³⁴⁾ 4월 28일에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 43호 ‘학도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 훈령 제 44호 ‘조선총독부학도동원본부규정’, 학무국통첩 제 92호 ‘학도동원체제정비에 관한 건’ 등이 각각 공포되었다. 이로써 ‘학도동원본부규정’이 공포되면서 각 도마다 학도동원 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정부총감 통첩으로 학교별 학생 동원 기준이 정해지고 동원체제가 강화되었다.³⁵⁾ 6월에는 ‘학생생도근로동원 출동요령’이 공포되었고, 10월부터 ‘학도근로령’으로 법적 귀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학도동원본부 조직을 만들었다.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³⁶⁾

34) 이상의 앞의 책, 297쪽.

35) 허수열, 앞의 논문, 330쪽.

36) 朝鮮總督府學徒動員本部規程, 『文教の朝鮮』 222, 1944.5,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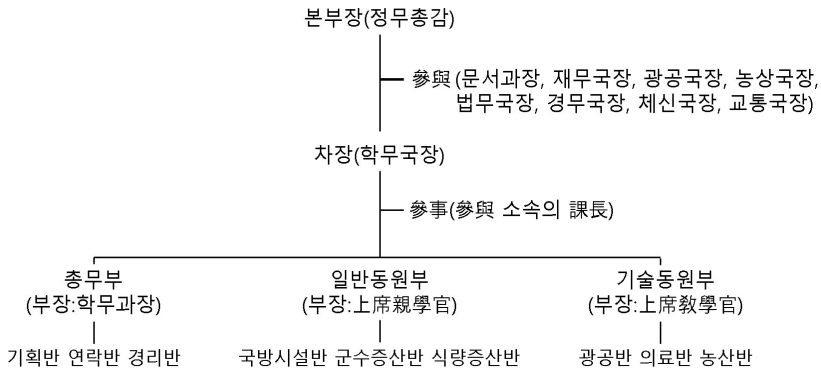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총독부학도동원본부 기구

출전: 『朝鮮總督府學徒動員本部規程』 『文教の朝鮮』 222, 1944.5, 5쪽.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錄一郎)를 수장으로 하고, 각 과장이 참여를 맡았으며, 실제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학무국장이었다. 학무국장 아래 각 과장이 참사로 참여하였다.³⁷⁾ 조직은 총무과, 일반동원부, 기술동원부로 나누어 각각 총무과장, 상급시학관, 상급장학관이 책임을 맡았다. 각급 학교는 학교장이 분대장이 되어 동원업무에 따라 일반동원부나 기술동원부의 지시를 받았다. 대구에도 경상북도 학도동원본부를 설치하였다.

동원 방식은 철저하게 상명하달식이었으며, 학교장은 다시 자신들의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학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켰다. 당시 학교 내외의 시설 설비나 국민들 생활을 위한 근로작업도 있었지만, 비행장, 도로확장, 송탄유 채취 등 군사요충지 대구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많았다. 이는 전쟁에 쓰여 질 시설이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학생들을 전쟁도구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3월에 ‘결전교육조치요강’을 공포하였고,³⁸⁾ 4월 1일부터 국민

37) 『朝鮮總督府學徒動員本部規程』, 『文教の朝鮮』 222, 1944.5, 5쪽.

38) 이상의, 앞의 책, 2006, 299쪽.

학교 초등과를 제외한 국민학교 고등과에서 대학까지 전 학교 수업을 정지하고 국민근로동원령의 적용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총동원 되었다.

Ⅲ. 학생 강제 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1. 대구·경북지역 군사적 노무 수요와 학생 동원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부임 후, 총독부는 도시계획과 공업화를 통한 군수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동원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은 1940년 11월 29일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개정하여 방공(防空)과 보안(保安)을 요체로 군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영연합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자, 조선군과 군사기지의 역할도 북방수비에서 일본 본토 지원을 위한 후방수비로 변화시키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 부임 후, 전통도시 대구의 식민도시화도 군사기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도로망의 확대와 비행장 확대 공사 등 노무수요가 대량 창출하게 되었다.³⁹⁾

그러면 대구경북지역의 군사 노무 수요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와 육군성의 전략과 사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당시 총독부가 대구를 전략적으로 개발한 이유는 한강 이남에 육군보병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고, 병참기지로써도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는 남부지역 중심지이며 전통적인 주요 거점도시라는 지리적·경제적 특성 때문에 섬유산업과 광물산업, 수류탄무기제조 등 군수물자와 관련된 상공업지구이기 때문이다. 총독부와 육군성에서는 시가지계획령을 활용하

39)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영남학 78호』, 2021.

여 대구의 병참기지적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 병참기지의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식량, 도로 개선, 군수기업작업 등에 학생들은 시스템적으로 동원되었다.

먼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학도근로보국대의 활동을 살펴보자. 경북도 학무과에서는 1939년과 1940년 7월 하계방학을 활용하여 학도근로보국대 남녀 중등학생 약 3,000명을 동원하였다.⁴⁰⁾ 이들 근로보국대는 하천 사방공사장으로 출동하여 작업에 종사하였다. 도내 각 중등학교별 작업 내용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구·경북 학도근로보국대의 동원표

학교명	동원지	인원	기간(일)	숙박장소
대구사범	김천군 개령면 사방공사	240명	7.22~7.31	개령소학교
대구중학	소성면 토지개량공사	23명	7.22~7.31 8.1~10	대구중학
경북중학	동교 증설공사장 지균작업	230명	7.22~7.31	경북중학
대구상업	경산 하천제방공사	200명	7.22~8.2	옥계소학교
대구농림	경주군 외동면 사방공사	80명	8.1~10	입실소학교
대구직업 학교	상주군 외서면 사방공사	45명	7.22~7.31	서정소학교
계성중학	경산군 안심면 사방공사	150명	7.31~8.9	안심소학교
경주중학	포항수산시험장 지균공사	45명	7.22~7.31	형산소학교
김천중학	자교 토목공사	120명	7.22~8.2	김천중학
안동농림	예천읍 사방공사	45명	7.22~7.31	예천소학교
상주농잠	자교 토목공사	43명	8.3~8.15	동교

출전: 『매일신보』, 1940.07.14

신문에서는 약 3,000명의 학생들을 10일에서 한 달 동안 대구, 포항,

40) 『매일신보』, 1940.07.14. 남녀학생 3,000명 ‘땀의 보국(報國)’, 경북 도내 중등학교생 총동원.

경주, 상주, 경산, 김천 등에 동원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각 학교에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대구사범학교 학생 240명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김천군 개령면 사방공사 작업을 실행하였다. 개령소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대구중학은 소성면 토지개량공사에 동원되었고, 경북중학교는 학교 증설공사장의 정지 작업을 하였다. 대구상고는 경산 하천제방공사에 대구농림고는 경주군 외동면에서 사방공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직업학교는 상주군 외서면 사방공사, 계성중학은 경산군 안심면에서 사방공사에 동원되었다. 그 외 학교들도 모두 맡은 바 업무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경북도는 학생들에게 대구 경북의 각지에서 사방공사와 제방공사, 학교 내 정지공사, 토목공사를 하도록 총동원한 것이다.

1941년 이후 학교총력대의 활동은 더욱 전면적이고, 보완적 근로의 의미가 아니라 중심적인 노동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 이후 대구 도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구역에서 남쪽으로 대봉동에 있는 육군보병80연대를 잇는 도로를 확대하고, 북쪽으로는 대구역, 동대구역, 아양교를 거쳐 동촌에 있는 대구국제비행장을 잇는 도로를 확장하고 비행장을 확대하여 일본의 오쓰키(小月) 군사기지와 연결하기 위함이었다.⁴¹⁾ 또한 북측 침산동, 원대동 등을 개발하여 공업지구와 주택지구를 조성하여 대구를 군수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⁴²⁾ 특히 대구에 국제적인 군사항공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기 위해 중요한 중계기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⁴³⁾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대구 학생들의 교련 집체 훈련과 집단근로노동은 육군보병80연대에서 담당하였다. 대구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을 비롯

41) 대구에 비행장이 개장한 것은 1937년 1월 31일이다. 대구에 비행장건설 요청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35년 8월 무렵 총경비 약 26만원 14만 평 정도의 부지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구항공무전국 발신소 및 수신소의 건설도 추진되었다.(『每日申報』, 1935.8; 1937.1.31.). 대구역에서 비행장까지 도로 건설은 193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4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경남, 앞의 논문, 2021 참조.

43) 『每日申報』, 「日滿을 연결하는 대구국제비행장」, 1938.

하여 대구사범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은 80연대에서 교련 시범 훈련을 받았으며, 80연대와 학도군로총력대는 대구비행장 확장, 격납고 건설, 대덕산 동굴파기 등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맡았다.⁴⁴⁾

1942년 9월 이후 고이소 총독 부임 이래, 한반도에 연합군이 상륙할 것을 대비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경북방위군 제24부대로 개편하였다. 학교총력대는 제24부대 휘하에 들어갔다.⁴⁵⁾

한반도 내에서 각 지역 출신의 조선인들은 대구육군병원, 대구제24부대, 대구출장소, 대도세육군학교 대구교육대, 동촌면 입석동, 육군 대구 기상관측소, 일본 오사카 육군항공보급창 대구출장소, 조선 대도세 육군 비행기 대구교육대, 조선육군창고 대구출장소 등 군사 시설에 동원되었다. 해외로는 중국 남지, 일본의 북방, 오키나와 등에 파견되었다.⁴⁶⁾

1945년 4월 이후 일본 육군성은 한반도에 조선남선제17방면군 용산사관구, 대구사관구, 광주사관구, 평양사관구, 나남사관구를 편성하였다. 대구사관구는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부산, 마산 등 남해까지 통솔하였으나,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서, 부산요새사관구와 제주요새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 대구사관구의 육군 후방병참기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부대가 만들어졌고, 각종 출장소가 대구에 설치되었다. 한반도를 관리하는 조선군관구부대 중 대구사관구 관리지구는 다음과 같다.

44) 대구사범학교심상과동문회, 『大邱師範尋常科誌』, 1991 참조.

45) 육군보병80연대는 1943년 동부 뉴기니아 전선으로 차출되어 호주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약 5천여 명의 병사가 대부분 사망하게 되었다. 여기에 징집되어간 조선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川嶋五郎, 『東部ニューギニア戦の回顧』, AZ企劃, 1981).

46) 국가기록원, 『일제강점피해자명부』, 2022년 현재. (www.archives.go.kr).

<표 2> 대구사관구 사령부의 관리지구

명칭	약칭	위치	명칭	약칭	위치
대구사관구 사령부	대구사관구 사령부	대구	특설경비463대대(1)	조선7475	포항
同보병제1보충대	조선 215	대구	특설경비409대대(2)	조선7473	대구
同 제2보충대	조선 216	마산	특설경비제402중대	조선8820	울릉도
同 포병보충대	조선 217	대구	특설404경비공병대	조선7446	대구
同 공병보충대	조선 218	대구	대구육군 구금소	조선7446	대구
同 통신보완대	조선 219	대구	대구육군 병참부	조선7446	대구
同 경중병보충대	조선 220	부산	대구지구사령부	조선7446	대구
제155경비대대	조선 15067	부산	부산육군 병참부	조선7446	부산
제156경비대대	조선 15068	대구	부산지구 사령부	조선7446	부산
제157경비대대	조선 15069	경주	대구육군병원	조선7446	대구
제158경비대대	조선 7059	김천	고사포제151연대 고사포대 제1소대	조선7420	왜관

출전: 陸軍省, 『南朝鮮主要兵團配置要圖』, 1945

위의 표와 같이, 대구사관구는 대구 일대는 물론 부산의 부산육군병참부, 부산지구 사령부를 관할하였고, 경주, 포항, 울릉도, 왜관 고사포대, 경남의 마산 등 광범위한 지역을 통괄하였다.(1945년 4월 이후 부산요새사관구와 분리). 남부일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 육군 보병, 특설경비대, 포병과 공병보충대, 경비대대, 특설경비공병대, 대구육군 구금소, 대구육군 병참부, 대구지구 사령부, 대구육군병원 등이 배치되었다.

대구, 경북과 경남지역까지 통괄하는 대구사관구에는 수많은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가 필요하였다. 우선 필요한 의복을 비롯하여 식량, 무기까지 5,000명 이상의 인원이 먹고 살고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필품과 무기류가 필요하였다.⁴⁷⁾ 총

47) 육군보병80연대가 뉴기니아로 차출되었을 때 5,000명으로서, 관련 작업 인원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부는 각 마을의 근로보국대 뿐만 아니라 학도근로보국대를 만들어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대구육군병원에는 대구의학전문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대구육군병원이 관할하는 거창, 고령 등에도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동원되어 진료를 하였다.⁴⁸⁾ 대구지구 사령부와 병참부에도 학생들이 동원되어 정지 작업 등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미영연합군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조선에는 제17방면군 직예부대를 비롯하여 경성사관구, 대구사관구, 광주사관구 부대는 물론 독립 혼성부대와 부산요새, 여수요새 등에 소속된 부대들이 주둔하게 되었다. 1941년 7월에 제62병참지구대 본부와 독립치중제74중대가 대구에 설치되었다. 1943년 7월에는 독립치중 제72중대, 8월에 제12야전수송사령부가 배치되었다. 더욱이 1945년 초반부터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부산과 제주 일대에는 많은 부대가 설치되었고, 대구 또한 후방을 지키는 부대로서 더욱 많은 부대가 편성되었다. 3월에 대구지구 헌병대, 독립철도제12대대가 배치되었고, 7월과 8월에는 보병제363연대, 제320사단 야전병원, 제320사단 치중대가 편성되었다.⁴⁹⁾

대구사관구에는 많은 인력이 배치되었는데, 대구는 물론 각지에서 1,516명의 군인·군속이 노무 동원되었다. 당시 조선 내에 잔류한 학도병은 4,385명 가운데 약 20%였으며, 징집된 조선인들은 집체 훈련을 하는 이외에는 각종 노무동원에 차출되었다. 1944년에 일반인 근로보국대도 군내 동원은 한 달, 도내 동원은 두 달 정도 동원되었는데⁵⁰⁾ 징집되거나 지원한 군인·군속과 학생들은 일년 내내 동원된 것이다.

한편 대구사관구 일대는 1943년까지 육군보병 제80연대와 경북방위군 제24부대가 학교총력대를 거느리고 학생들을 통솔하였으며, 1944년 4월

48) 大邱醫學專門學校, 『大邱醫學專門學校年表』, 1944.

49) 陸軍省, 『南朝鮮主要兵團配置要圖』, 1945.

50) 대장성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제9분책, 1952, 72쪽. 대장성에서 파악한 1944년 도내 동원 노동자는 2,454,724명으로서, 근로보국대가 1,925,272명 78.4%로 가장 많았으며, 도내 관알선 482,131명(20%), 모집이 37,321명(1.5%)순이다.

이후부터는 80연대가 동부 뉴기니아로 파견을 가면서 대구사관구 사령부와 경북방위군 제24부대에서 학생 동원을 담당하였다.⁵¹⁾ 이렇게 도시계획의 도로망을 정비하는 작업과 항공기지를 확대하는 작업, 대구사관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심기, 벼베기 작업 등의 노무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작업에는 국민개로 정책과 학도동원령에 따라 학교총력대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시스템적으로 강제 동원하여 추진하였다.

실제로 이 작업에는 대구의 대부분의 학교가 동원되었는데, 마치 육군 보병80연대의 부속 학교처럼 여겨졌다. 학교총력대 소속 학교는 대구고 등보통학교(현재의 경북중고), 대구농림학교, 계성학교, 대륜학교, 대구공업여자고등보통학교, 대구공업상업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실수학교, 기예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사범학교 등 약 6,610명의 학생이 동원 대상이었다.⁵²⁾

대구고보는 경북학도동원본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이면 항상 근로보국대로 동원되어야 했다. 1940년 상주군 공성면 제방보수공사에 동원되었고, 1941년 가을에는 2, 3학년생들이 상주의 벼베기에 동원되었다. ‘관동군 참모장을 역임하고 조선군사령관이었던 고이소 구니아키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더욱 더 발악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혔다’. 그는 미나미 총독이 닦아 온 황민화정책을 아예 식민지수탈과 노예화정책으로 강화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징용 징병 공출 등의 이름으로 강행하였다. 병영화된 학교에서도 교육보다는 충성스런 신민으로서 근로보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로 간주되어 갔다. 성적 평가를 전과목 성적과 수련성적(작업량, 사상)을 반반으로 매겼다.⁵³⁾

대구농업학교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식량 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학교로 여겨졌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1930년부터 이미 조림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임과(林科)에서 하계휴가를 이용하

51) 경북고등학교 외, 『慶脈 117年史 : 1899-2016 [I]』, 2016, 208~214쪽.

52) 김민남 외, 『통계로 본 일제강점기 삶과 교육』, 사람대사람, 2008.

53) 경북고등학교 외, 앞의 책, 2016.

여 사방공사를 했으며, 총동원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학도동원기구에 동원되어 대구 달성공원 국채명징관 부지 기초작업, 신궁 부지 작업에 동원되었다. 1940년부터는 경주에 가서 10일간 조립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무 동원되어 사방공사를 하였다.⁵⁴⁾ 이 학교는 1942년부터 경북학도동원기구가 학생들을 동원하여 수업을 거의 전폐하였다. 학생들은 강제로 사방공사, 식량증산활동, 생산조사에 동원되었다.

대구농업학교는 김천, 군위, 영천, 달성군을 담당하여 동시에 전전하면서 사방공사를 하였다. 도구는 군 사방관리소에서 제공받고 3주일간 강제동원을 당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칠대로 지쳐서 귀가했다. 이외에도 1943년 금호에서 1주일간의 모심기 동원, 군위에서 1주일간 생산 조사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포항과 영일군에서도 벼베기, 보리갈이 동원을 부과하였다.

1944년과 1945년에는 마치 일반 노무자처럼 강제 동원당하였고, 군사훈련에도 동원되었다. 경북학도동원기구는 학생들을 농번기에 예천 등 도내 전역에 이동하면서 모심기를 하거나, 하천부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또한 원료가 부족하다면서 공산면 동화사 등지에 동원되어 송탄유를 채취하게 하였다. 관술 채취에 책임량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으며,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 학교는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사방공사를 하게 만드는 강제 동원이 가장 많았다. 이 학교의 노무 동원은 회수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외에도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수류탄 던지기, 토낭 운반경쟁, 장애물 경기 등에 동원하였다.

2. 군수물자 조달기업과 학생 동원

다음으로는 대구지역에 산재해있는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에 동원된 케이스이다. 이 공장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54) 대구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 『大邱農高九十年史：1910-2000』, 2000, 114~116쪽.

동원되었는지 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계성학교 학생들이 조선방직 대구조면공장에 거의 매일 교사의 인솔하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당직일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음 표 17, 18, 19는 대구 지역 동원 작업장 일람표이다. 임시군속계 명부에서 동원된 기업을 찾고, 기업의 상세 내용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통해 추출하였다.

<표 3> 대구부 소재 강제동원 작업장 및 기업 개요

연번	작업장명	작업장	지역	사장	창립연도	종업원수	업종
1	경북지업(주)	1	상정 53	金本弄春	1939	9	제조
2	고려광업개발	2	대화정 56		1940	4	광업
3	고착판매통제회사	1	대화정 25	立嶋領三郎	1922		금융
4	광성유리공업	1	남산정 73	白南塚	1937	3	제조
5	남선양조사	1	동성정 3, 49	達原莊種	1928	6	양조
6	남선타올공업	1	원대동 1174-1	伊藤吉三郎	1939	8	제조
7	남선평복공업(주)	1	원대동 165	內田喜一, 酒井松藏	1940	5	제조
8	노무라호무구군수품(주)	1	동성정 2, 38-2	小野元太	1938	14	제조
9	대구산업(주)	1	本町 2, 58	坂本俊資	1935	9	광업
10	대구요업(주)	1	내당동 502	水原南塚	1936	5	제조
11	대구제사(주)	1	동운정 140	野澤幸三郎	1932	5	제조
12	대구제작소(주)	1	동운정 72	増田定吉	1938	7	제조
13	대구조선양조	1	동성정 3, 70-1	青木勝	1928	5	양조
14	동아성냥(주)	1	금정 2, 200	張稷相	1920	7	제조
15	영일탄광공업(유한)	1	원정 1, 90	高崎平吉, 井上雅弘	1942	6	광업
16	와카마쓰상회	1	동문정 20	若林誠助	1936	6	양조
17	월성호모공업	1	금정 2丁目	田中龍二	1939	6	제조
18	조선광업(주)	30	상정 10	稻垣宗次郎	1923	4	광업
19	조선생사(주)	2	동운정 165	岡野悌二	1919	9	제조

연번	작업장명	작업장	지역	사장	창립연도	종업원수	업종
20	명호철공소		내산동				제조
21	중천철공소		남산동				제조
22	조양철공소		남산동				제조
23	남부철공소		남산동				제조
24	조선방직대구공장		칠성동				제조

출전: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194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동원 기업의 특징은 생사, 식물 등의류 생산 기업과 철공소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수류탄을 제조하는 철공소이다. 그리고 종이, 고무제품 등 총독부의 물자통제 시스템 하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이었다. 위의 기업에는 군속들이 많이 파견되었으며, 학교 학생들도 담당 기업에 동원되었다. 조선방직 대구조면공장에는 계성학교총력대와 신명여학교총력대가 담당하였다.⁵⁵⁾ 1944년부터는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또한 계성학교총력대는 명호철공소, 중천철공소, 조양철공소 담당으로 수류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학교 일본인 교사들이 인솔하여 철공소로 동원되었다.⁵⁶⁾ 남부철공소는 대구고보 담당이었다.⁵⁷⁾

그리고 광산물 관련 기업에도 동원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달성군 가창의 달성광산(達城鑛山)이다. 이 광산은 1915년 달성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이다. 1911년에 대구전기주식회사(이후 대흥전기)에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산 개발을 위해 전기를 끌어들었다.⁵⁸⁾ 망상광상(網狀鑛床)으로 1916년 4월 강원도 영월의 상동

55) 신명고등학교 외, 『信明百年史 : 1907-2007』, 2008, 124~129쪽.

56) 계성학원, 『當職日誌』, 1944.

57) 경북고등학교 외, 앞의 책, 2016.

58)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1911년 대구전기주식회사(大邱電氣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1915년에는 달성광산에도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대구전기는 1918년 대흥전기(大興電氣)로 이름을 바꾸고, 함흥전기를 비롯하여 광주전기, 통영전기, 전남전기, 남원전기, 안동전기, 경주전기, 울산전기, 거제전기, 여수전기, 하동

광산(上東鑛山)과 함께 채굴이 시작되었는데, 텅스텐의 원료는 중석으로 상원리에 많은 중석이 내장되어 있다. 상원2리에 대한중석 달성광업소 1구 공구와 사택이 있었으며, 현재 대구택 자리에 2공구가 있었다. 개발은 1937년 고바야시광업회사(小林鑛業會社)가 담당하였다.⁵⁹⁾

달성광산에는 대구 소재 학교의 학생들도 동원되었다. 특히 경북학도 동원기구는 계성학교를 배속하여 근로 동원을 하였다. 학생들은 광산이라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노무 동원됨에 따라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숙사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노무 강제 동원에 저항하였다.⁶⁰⁾ 학생들의 이러한 저항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한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구항공대 도로와 확대 공사 동원

한편 항공전으로 전투방식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신속한 전투기 왕래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대구비행장은 국제비행장으로 승격하였다.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중계지로서, 대구는 일본 본토의 후방 병참기지로써 중요한 거점으로 위치 지어졌다.

대구에는 항공기와 관련된 정비와 수리가 주요 업무인 야쓰야(八谷) 항공주식회사 등이 만들어졌으며, 기계기구 철공소, 광산 등에 노무수요가 창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무 수요 창출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을 군수에 필요한 노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노무자’로 강제 동원하였다.

전기 등 중소회사를 합병하여 조선 남부의 전력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만 엔이었으나 1926년에 이르면 200만 엔으로 불어났다.

59) 해방 이후 세계 최대의 단일광구였던 상동 광산과 달성 광산을 주축으로 전 세계 중석 시장의 8%, 자본주의 진영 공급량의 10~20%까지 담당했다. 국영기업 대한중석의 산실로서, 3천여 명이 종사했다. 박태준 사장이 들어온 이후 1968년 4월, 대한민국 정부의 합작투자자(정부 75%, 대한중석 25%)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하였다.

60) 계성학원, 『啓聖八十年史：1906-1988』, 1989, 136~152쪽. 강제동원에 대한 학생의 저항에 대해서는 권영배, 앞의 논문, 2008 참조.

이러한 학생 강제 동원은 일제 말에 더욱 강화되었다. 1944년 2월 25일 내각이 결전비상조치요강을 만들고, 3월 18일에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 관한 건 통첩」을 학교에 하달함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초등 저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동원하는 법적 장치였다.⁶¹⁾ 이 조치 이후, 학생들은 일제의 군사시설과 도로 확충 사업 등에 동원되었다.

항공기는 육군성과 해군성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와 경상북도도 도로확장과 도로신설, 노무동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징집과 학생들의 강제 동원을 통해 대구동촌비행장이 확장되었으며, 1940년 일본 육군은 오쓰키에서 1시간 10분 걸려 매일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⁶²⁾ 당국에서는 ‘근로가 곧 교육정신’이라고 선전하면서 학생 근로동원을 제도화하고 사상을 주입시켰다.

대구의 주요 군사 시설인 대구항공기지 도로공사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효되기 전인 1926년부터 조선총독부·경상북도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는 총독부 토목과 행정계가 대구역에서부터 동촌 대구비행장까지 2등 도로 지정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934년 「시가지계획령」 발효 후 총독부는 남부지역의 비행장 노선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동촌비행장 도로공사가 실시되었으며, 1936년 대구비행장선 개수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1937년 1월 26일 동촌에 대구비행장을 개장하였다. 당시 14만 여 평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었다. 그해 1월 29일 제3회시가지계획 위원회에서는 인구 35만 명(1965년 기준)을 기준으로 시가지계획 구역·도로망·구획정리구간을 결정하였다.

1941년 이후 미국이 참전하면서 대구부·조선총독부·육군성은 대구시가지계획 원안을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가로망 설치와 비행장을 긴급히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 설치된 22개 항공부대 중 10개가 경상도에 설치되었다. 대구항공기지는 오쓰키항공기지

61) 朝鮮總督府, 「學徒動員非常措置要綱に関する件 通牒」, 4~9쪽. (CJA0022792(01-1))

62) 오쓰키 항공부대와 대구 항공부대의 연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경남, 앞의 논문, 2021 300~305쪽 참조.

와 연결하는 것으로서, 1940년부터 육군성 항공수송 계획을 수립하여 개통하였다. 1945년 2월부터 대구사관구 사령부와 대구항공부대는 부산, 포항, 울산, 김천, 진주, 사천 등의 군사기지·항공부대와 연결하였다.

대구비행장에 동원된 학교는 대구고등보통학교, 대구사범학교, 계성학교 등이다. 대구비행장에는 대구 관내 학교 학생 280 여명이 3월1일부터 31일까지 동원되었다.⁶³⁾ 또한 대구고보 학생은 1944년 4월 1일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동촌비행장에 파견하여 격납고 공사에 동원되었다.⁶⁴⁾ 당시 대구고보 학생은 230명으로서 일본인도 포함하여,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노무 동원에 강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동촌비행장 대피소를 건설하는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도시계획이 ① 시가지 구획 통제 ② 군사병참 도로망 ③ 군사적 항공수송 노선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 군사적 노무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육군성의 요청에 따라 경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구비행장 노선을 설계 추진하였으며 총독부가 각도를 통할하여 관리하였다. 이와 동시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도로 및 확장 공사를 추진할 경우 군인, 군속은 물론 학생들도 대거 동원했는데, 대구 관내 학생들은 동촌비행장의 격납고 공사에 강제 동원되고, 비행장 대피소 등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일제의 학생 근로동원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국제노동기구에 서 157개국이 비준한 학생 노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불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로동원의 강제성은

63) 慶尙北道, 「勤勞學生動員報告書」, 1945.4(김민남 외, 앞의 책, 2008 재인용)

64) 경북고등학교 외, 앞의 책. 2016, 208~214쪽.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내각과 조선총독부가 만든 법적 체제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학생 강제동원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인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일본정부와 기업은 세계 159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제29호 강제근로 폐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ILO 총회는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강제 근로 폐지를 목적으로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을 그해 6월 28일 채택하였다. 그해 12월 7일 일왕의 결재에 따라 일본정부도 비준하였으며,⁶⁵⁾ 세계 159개국이 비준하였다.

효력 발생은 1932년 5월 1일이다. 주요 내용은 이 협약이 강제 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 직원을 강제근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지 유예기간을 둔 강제 근로 대상도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1항에는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⁶⁶⁾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강제 동원한 것은 스스로 약속한 국제법을 파기한 것이다.

그러면 1939년이나 1943년 기준으로 조사한 대구권역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를 통해 불법을 자행한 인원을 파악해보자. 학생 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

65) 「強制勞動に関する條約」, 1932.12.7. 일왕 서명원본에는 ‘짐은 추밀고문의 자문에 따라 소화5년(1930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노동총회가 채택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함’이라고 결재되어 있다.

66)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 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이다 (ILO 제29호 제1조).

도 있지만,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향후 정확한 조선인 동원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표 4> 대구권역 학교 일람

학교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위치
대구공립농림학교	10	21	133(일) 339(조)	신천동
대구사범학교	15	30	206(일) 485(조)	대봉정
대구의학전문학교			800	
계성학교	10	18	539	신정
대구신명여학교*	4	11	201	남산정
경북공립고등여학교**	8	17	410	남산정
대구공립고등여학교	14	23	717	동운정
대구공립상업학교	10	18	242(일) 256(조)	대봉정
대구교남학교 (대륜중고등학교)	7	10	380	하동
경북공립중학교*	40	22	486	대봉정
대구공립중학교**	10	21	485(일) 7(조)	대봉정
대구공립직업학교	4	11	12(일) 140(조)	신암동
대구공립상업실수학교	2		58	봉산정
대구여자기예학교	4	7	109(일) 605(조)	북용강정

출전: 『大丘府使』 1943년, (일)은 일본인, (조)는 조선인

위의 표에서 보는 같이, 대구에는 중학교 이상 15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1943년 현재 중등이상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일본인 포함 6,610명이었다. 1945년 현재 동원기구에서 계획하고 있던 학생 수는 157,962명이다. 대학 전문학교 25개소 7,262명, 사범학교 16개소 12,098명, 중등학교 309개소 138,592명이다.⁶⁷⁾ 1944년 수업을 전폐하고 학생들에게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여 280일을 동원한다고 하면 대구에만 연 인원 1,850,800명이 된다. 전국의 학생 수로 추산해 보면 연 인원 44,229,360명이 동원된 것과 같다.⁶⁸⁾

67) 김민남 외, 위의 책, 2008.

68) 이 수치는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인만 추산할 때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통제방식도 군대식으로 하여 학생들에게는 위협적이었다. 경북학도동원기구는 학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장을 대장으로 하고, 교감, 교사를 지도위원으로 하고, 학생간부들을 활용하였다. 학교는 군대식 시스템을 만들어 군부대처럼 중대, 소대로 나누어 학생들을 통제하였다. 훈련과 통제는 1943년까지 80보병연대가 맡았으며, 연대가 동부뉴기니아로 떠났을 때는 대구사관구 사령부와 경북방위 제24부대가 담당하였다.

1945년 4월 현재 동원의 주체는 경상북도 산림과, 대구 자동차 학교, 대구 장작조합, 육군병원, 비행장 등이다. 각각 송탄유 재료 채집, 자동차 도로 조성작업, 장작 하산작업, 비행장 정지 작업 등을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4, 5, 6학년에게도 80연대의 돼지키우기, 학교 주변과 신사 청소 등을 시켰다고 한다.⁶⁹⁾

대구 지역 대표적인 학교 15개 학교에서만 6,610명(일본학생 포함)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하계 방학을 통해 동원되었고, 수시로 식량증산, 오일생산, 신사 청소, 사방공사, 동촌비행장 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1944년 이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근로가 교육’이라는 학교 방침대로 강제동원되었다.⁷⁰⁾

다음으로 일본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대구지역 학교별 총력대의 학생 근로동원장 및 동원종류를 살펴보자. 대체로 1939년 조사 기준으로 대구의 학교상황과 학생들의 강제 동원지,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69) 허○○, 영천 거주, 현재 89세(2021.8 인터뷰)

70) 초등학교 4, 5, 6학년도 강제 동원되어 80연대에서 돼지키우기, 학교주변 청소하기, 신사 청소 등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나 후고에서 다를 예정이다.

〈표 6〉 학생 근로동원지와 국제법적 불법 실태 (1938~1945 학교별)

교명	동원지	내용	동원 종류
대구 사범학교 총력대	농장	농장	식량 증산
	대구농림학교 앞	벼 베기, 잡초 제거	식량 증산
	성주 농장	농장	식량 증산
	가창면 야산	솔방울 모으기	오일 증산
	동촌 비행장	비행기대피소 작업	건설공사
	대명동 운동장	종합운동장 작업	단순 노무
대구의학 전문학교 총력대	금호강	호안 축제 공사	하천 공사
	대구의전 도로	서측 도로 하수구굴형 공사	건설 공사
	대구의전 도로	운동장 서측 도체 축조공사	건설 공사
	대구의원 내	본교 연맹정구장 신설공사	건설 공사
대구농업 고등학교 총력대	교내 운동장	군사 교련	군사 훈련
	밀양, 고령, 영천	아영 훈련	군사 훈련
	달성공원	국체명징관 작업	건설 공사
	달성공원	신궁 부지 작업	건설 공사
	경주 입실	사방공사	사방 공사
	김천	사방공사	사방 공사
	군위	사방공사	사방 공사
	영천	사방공사	사방 공사
	달성	사방공사	사방 공사
	금호	모심기 동원	식량 증산
	군위	생산 조사 동원	생산 조사
	포항 및 영일군	벼 베기, 보리갈이	식량 증산

교명	동원지	내용	동원 종류
대구 상업학교 총력대	왜관	도로 확장 공사	도로 공사
	신동	도로 확장 공사	도로 공사
	가창면	사방공사	사방 공사
	마루보시	설탕, 담배 적하 작업	단순 노무
	칠곡군 지천면 야산	송탄유 채집 동원	채집 동원
	공산면 동화사 산림	송탄유 채집 동원	채집 동원
	수성 뒷산	송탄유 채집 동원	채집 동원
	앞산 등지	송탄유 채집 동원	채집 동원
	시내 도로 및 역 앞	방공호 파기	방공호 공사
	대덕산 연병장	방공호 파기	방공호 공사
	사단사령부	방공호 파기	방공호 공사
신명여학교 총력대	동산 숲	방공호 파기	방공호 공사
	육군 병원	역지 위문	위문 동원
	군부대	역지 위문	위문 동원
	원대동	보리갈이	식량 증산
	중리동	보리갈이	식량 증산
	비산동	보리갈이	식량 증산
경북 고등학교 총력대	대구역	일군 환송 동원	환송 동원
	상주군 공성면	제방 보수공사 동원	하천 공사
	하양 (하양소학교)	모내기작업	식량 증산
	청도군 화양면(화양소학교)	근로봉사	식량 증산
	수영장	수원 확장 공사	건설 공사
	달성군 수성면 만촌동	학교터 조성	단순 노무
	남산동 남부철공소	수류탄 제조작업	무기 생산
	칠성동 면화 공장	숨뭇치 하역작업	단순 노무
	동촌 비행장	격납고 공사 동원	건설 공사
	가창면	원목운반 작업	단순 노무
제성학교 총력대	의흥군 농장	하천부지 개간	하천 공사
	가창 달성광산	광산 노역	광산 노역
	인근 산	송탄유 채집 동원	오일 증산
	명호철공소	수류탄 제조작업	무기 생산
	중천철공소	수류탄 제조작업	무기 생산
	조양철공소	수류탄 제조작업	무기 생산

교명	동원지	내용	동원 종류
경북중학교 총력대	칠곡군 지천면 송정동	사방공사	사방 공사
○○국민학 교	대구신사 달성공원	신사참배, 청소	신사 동원
	대구 대봉동 육군보병80연대	돼지키우기	식량 증산

출전: 대구사범학교심상과동문회, 『大邱師範尋常科誌』, 1991; 신명고등학교 외, 『信明百年史: 1907-2007』, 2008;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편찬회,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편찬회』, 大邱商業高等學校 同窓會, 1973; 경북고등학교 외, 『慶脈 117年史: 1899-2016[I]』, 2016; 대구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 『大邱農高九十年史: 1910-2000』, 2000; 계성학원, 『啓聖八十年史: 1906-1988』, 1989; 계성학원, 『啓聖百年史: 1906-2006』, 2006; 『대구부사』, 1943. 인터뷰 조사기록 (2021.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사범학교, 대구상업학교, 대구농업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신명여학교, 계성학교, 경북중학교 등 대구의 유명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4년 이후부터는 4, 5, 6학년 국민 학생까지 총 동원하였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학교에 하달한 동원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식수사방공사, 하천제방축조공사, 대명동활공장정지작업, 비행장정지작업, 장작하산작업, 개간작업 등으로 내몰렸다.

교외에서는 생산동원이란 명목으로 대구부는 물론 경북 각지로 동원되었다. 의성 농촌실태조사, 경산방면의 모심기동원, 대구근교의 하천부지 개간작업 등은 물론, 왜관. 신동의 도로확장공사와 가창면의 사방공사 등의 근로작업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특히 비행장정지작업이나 도로공사, 사방공사 등은 대구부와 경북도의 육군제80보병부대와 대구동촌비행장 확대 등 군사적 목적에 따라 전개된 것이었다. 그 이외에도 대부분 대륙병참기지의 식량증산이나 석탄, 철공장 등으로 동원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바로 옆에 육군보병제80연대가 위치해 있어, 총독부와 군부는 학생들을 동원하기가 용이하였다.

이처럼 국가총동원체제하에서 일제는 학생근로보국대를 활용하여 대

구부는 물론 경북권역까지 당시 중등학생, 전문학생은 물론 국민 학생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강제 근로 노동을 하도록 시켰다. 이것은 당시 ILO의 학생 근로 동원 금지 조항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 동원 과정에서 취한 교사들과 교장의 비인격적 처우와 퇴학을 시키는 행위는 ‘인도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총동원체제하에서 대구지역 학생들이 어떻게 강제동원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반도 내 강제동원 연구는 일본으로의 강제동원 연구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을 사례로 일본정부와 군부가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군사적 시설을 배치하였는지 그 실태를 밝히고, ILO 국제법의 학생 근로 금지 규정에 주목하여, 일본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비인권적인 강제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사례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각 지역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학생동원은 1938년 5월 총동원법 시행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3차 조선교육령에 30일 이내 근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은 방학이나 방과 후에 근로동원을 해야 했다.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60일 이내, 10개월 이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44년 4월부터는 수업을 전폐하고 근로 동원을 강제하였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침해당하였다.

대구지역 학생들은 법적 장치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주도하는 학도동원본부 산하 경북학도동원기구를 통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으며, 근로동원지는 대구·경북의 군사 거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강제동원은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군사관구, 대구

신사, 대구동촌비행장(제11항공부대), 금호비행기격납고, 육군보병제80연대, 철공장, 남선방직, 조선방직대구공장, 달성광산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원된 학생은 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대구 사범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는 물론 대구농업학교, 대구상업학교, 신명여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경북중고등학교), 계성학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학생들은 1939년 국가총동원체제하 학도동원령이 발효된 이후, 육군보병 제80연대의 통솔 하에 교련 실습을 행하여 지역의 예비군으로 양성되고 있었다. 또한 경북방위군 제24부대의 통솔 하에 학교에서는 학교근로대를 만들어 ‘근로봉사’나 ‘근로교육동원’이라는 미명하에 대구비행장은 물론 무기생산, 식량증산을 위해 대구·경북의 각 군사거점 시설과, 기업, 농장, 인근 야산 등으로 차출되어 강제노역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1년 이후에는 학교총력대를 조직하여 교장을 대장으로 하고, 교감과 교사를 지도위원으로, 반장 부반장을 조직하여 학생들을 시스템적으로 동원하였다. 중등학교 이상 15개 6,610명이 동원 대상이었으나, 1944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48개 4,5,6학년 이상 학생들도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하계방학이나 방과후에 동원되다가 일제 말에는 일년 내내 계속 강제동원되었으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인원수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독부의 학생 강제 근로동원은 당시 ILO(국제노동규약) 제7조에서 학생 근로를 금하는 국제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한·일간 식민지 보상문제로서 당시 학생들의 피해보상문제를 엄격하게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어떻게 각 학교까지 하달되는지 강제동원시스템의 하부구조를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사례로 구체적인 강제동원 실상을 밝히

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타 지역이나 학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 동원의 피해자 보상법에 무상으로 강제 동원된 학생들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를 재고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內閣, 「國家總動員法を施行する件」, 1938.4.1.
內閣, 「國家總動員法を朝鮮・臺灣・樺太に施行する件」, 1938.5.3.
內閣, 「第3次朝鮮教育令改正」, 1938.3.3.
大邱府軍事後援連盟會長, 「愛國獻金取扱に関する件」, 1938.2.17.
大邱府尹, 「國民精神總動員第2回強調週間実施の件」, 1938.02.22.
大邱府軍事後援連盟會長, 「〇〇部隊戰績展覽會開催の件」, 1938.02.22.
大邱府, 「國民精神總動員に関する講演会の開催に関する件」, 1938.05.30.
大邱醫學專門學校, 『大邱醫學專門學校年表』, 1944.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朝鮮編 第9分冊, 1952.
『文教の朝鮮』, 『朝鮮』, 『毎日申報』, ILO 제29호 제1조
「強制勞動に関する條約」, 1932.12.7.
大邱醫學專門學校, 『大邱醫學專門學校年表』, 1944.
陸軍省, 『南朝鮮主要兵團配置要圖』, 1945.
朝鮮總督府, 「國民精神總動員實施要綱」, 1937.8.24.
朝鮮總督府, 「國民總力運動に対する管理の率先垂範に関する件」, 1941.6.7.
朝鮮總督府, 「學徒動員非常措置要綱に関する件 通牒」, 1944.
朝鮮總督府學徒動員本部規程 『文教の朝鮮』 222, 1944.5.
陸軍省, 『南朝鮮主要兵團配置要圖』, 1945.
慶尙北道, 「勤勞學生動員報告書」, 1945.4.
慶尙北道, 「學校總力隊結成式に関する件」, 1941.10.18.
계성학원, 『當直日誌』, 1944.
대구사범학교심상과동문회, 『大邱師範尋常科誌』, 1991.
신명고등학교 외, 『信明百年史 : 1907-2007』, 2008.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편찬회,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편찬회』, 大邱商業高等學校 同窓會, 1973.
경북고등학교 외, 『慶脈 117年史 : 1899-2016 [I]』, 2016.
대구농림고등학교충동창회, 『大邱農高九十年史 : 1910-2000』, 2000.
계성학원, 『啓聖八十年史 : 1906-1988』, 1989.

계성학원, 『啓聖百年史 : 1906-2006』, 2006.

강명숙, 「일제말기 학생 근로 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韓國教育史學』 제30권 제2호, 韓國教育史學會, 2008.

강필구, 「일제의 전시체제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분석 -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3.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권영배, 「일제말 전시체제하 중등학교의 동원과 저항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40집, 역사교육학회, 2008.

김경남, 『일제의 식민도시 건설과 자본가』, 선인, 2015.

김경남, 「전시체제기 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35, 2018.

김경남,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 경북대출판부, 2020.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영남학』 78, 2021.

김광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 한국과 일본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6, 2019.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 제12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

김민남 외, 『통계로 본 일제강점기 삶과 교육』, 사람대사람, 2008.

김민영,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전북지역의 사례」 『한일민족문제연구』 1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9.

김윤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한일민족문제연구』 14, 한일민족문제학회, 2008.

김진영, 「일제 말 강화군에 대한 인력동원의 실태와 추이(1938~45)」,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노영중, 「대전지역의 강제연행 현황」 『대전문화』14, 2008.

노영중, 「일제강점기 충남지역의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67, 201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강제동원명부 해제집1, 2』, 同위원회, 2013.

- 문혜지, 「일제말기 완도지역 노무동원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주백,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역사교육』 제78집, 역사교육연구회, 2001, 75~109.
- 庵途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 이병례,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 제주도 주민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7, 역사학연구소, 2007.
-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가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제24호, 首善史學會, 2005.
-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가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제24호, 首善史學會, 2005.
- 이수환·이광우, 「일제강점기 경북지역의 이주와 일상사:1939~1945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의 현황과 실태」 『코리아연구』 3, 2012.
-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근로보국대와 국내노무동원 = 학생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95호, 2015.
- 정혜경, 「일제말기 경북지역 출신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저항」, 『한일민족문제연구』 2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3.
- 정혜정,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韓國教育史學』 제30권 제2호, 2008.
- 최규진, 「학교를 덮친 ‘전시체제’, 동원되는 학생」 『(내일을 여는) 역사』 제50호, 선인, 2013.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國學資料院, 1997.
- 허수열, 「일제말 조선 내 노동력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신상규명위원회, 2005.
- 허수열,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 본군 연구』, 보고사, 2008.
- 국가기록원, 『일제강점피해자명부』, 2022년 현재.(www.archives.go.kr).

Military Characteristics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 Daegu-Gyeongbuk Regions and Its Illega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s

Kim, Kyung-na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of the forced mobilization enforced on students of the secondary schools in Daegu-Gyeongbuk regions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fter all, it reveals its illegality in terms of the internal laws in context that the role of Korean peninsula as a military supply base had changed and the role of Daegu-Gyeongbuk as a strategic military base had shifted into the rear supply base corresponding to the expansion of Imperial Japanese warfare into the wars with China and the Allied Powers in the Pacific War.

In Korean peninsula,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was carried out by the legal devices of ‘National Mobilization Law(국가총동원법)’ and ‘Chosun Education Oder(조선교육령)’. For Daegu - Gyeongbuk regions, the students had been mobilized as the ‘Students Labor Patriotic Squad(학생근로보국대)’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80th regiment of Army infantry(육군보병 제80연대) from 1938 to 1941. After when they were forcedly mobilized as the organization of the ‘Student All-Out Force(학생총력대)’ under the direction of ‘Daegu Military Distict of Gyeongbuk 24th Army(경북24부대 대구사관구)’.

The purpose of their mobilization was to build the military roads and munitions works and improve the facilities of air base for the

expansion of air forces. This mobilization demonstrated that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had violated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student compulsory labor enforced from 1932 on.

Given the above findings, the problem of the student forced mobilization has not been deal with so far in discussion of Compensation for Compulsory Mobilization Damag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continuous and full-fledged research of it in the future.

keywords :

Students, forced mobilizatio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Daegu Military Base, Chosun Governor-General, Japan Army, Air Force

